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지정 촉각

도·9개 요양병원장 지난 11일 확진자 발생 대응 회의
제주의료원 요양병원 거론... 상황보며 지정여부 결정

전국적으로 요양병원발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지속되자 제주에서도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 논의가 시작됐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 방역부와 도내 9개 요양병원장은 지난 11일 '요양병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응방안 마련'을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대다수 요양병원장들은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을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하는게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은 복지부 지침상 지정 2순위에 해당하는 국립요양병원으로 병상 199개를 갖추고 있다.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은 지자체 의견을 토대로 정부가 지정한다.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에는 하루당 병상 단가 이상이 보상되며, 요양환자는 병상 단가의 50% 이상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제주도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이 생기면 동일집단 격리(코호트 격리)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동일집단 격리란 1인 1실 입원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 확진자는 확진자끼리, 비확진자는 비확진자끼리 동일한 집단을 묶어 격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요양병원 내에서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완벽하게 분리하지 못한채 동일집단 격리가 이뤄지면서 오히려 감염자가 추가적으로 더 나타나는 등 피

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요양병원에서 대규모로 확진자가 나올 경우 확진자를 의료진과 돌봄인력, 음압시설을 갖춘 전담 요양병원에 신속히 전원하는 방식으로 동일집단 격리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제주도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 논의에 착수한 것은 맞지만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며 실제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내에서 당장 활용이 가능한 코로나19 전용병상은 475개"라며 "요양병원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은 이상 전담 요양병원을 따로 지정할 게 아니라 남은 병상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초가와 어우러진 하늘 13일 서귀포시 휴애리 자연생활공원을 찾은 탐방객이 동백꽃과 감귤이 어우러진 정원을 산책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국토부,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 "존중"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건설 찬·반 도민여론조사를 언론사 등 제3기관에 요청해 실시하는 방식으로 변경 추진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제주도가 공식적으로 보내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제주도의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존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후 제주도에서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따른 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공문으로 제출하면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1일 열린 제주도와 도의회가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관련 합의문 조정·변경에 따른 기자회견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

도는 이날 국토부의 입장과 별도로 추후 국토부에 조사 여건·방안 변

경 등을 전달하고, 공식적인 의견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여론조사 결과 반대비율이 찬성비율보다 1%라도 더 높으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발언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면담과정에서 제주도, 도의회 등과 다양한 예시를 논의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교통 이학승·문화 고춘화·도시건설 이창민

도, 상반기 정기인사 단행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
인재개발원장 현공언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고춘화 문화체육



이창민 도시건설



이학승 교통항공



홍충호 농축산

제주특별자치도가 15일자로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을 발탁하는 등 2021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를 13일 사전 예고했다. >> 관련기사 2-8-9-13면

도는 이번 인사배정에 대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상 회복 및 경제 위기 극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인사 규모는 644명으로 승진자 158명을 비롯해 행정시 교류 94명, 전보 378명, 신규 14명 등이다.

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고공안정화, 제주 미래가치 창출 뉴딜사업 추진 등 코로나19 이후 도민 일상 회복과 경제 위기 극복 추진에 중점을 두고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뉴딜사업 성과 창출을 위해 제주형 뉴딜을 총괄하고 그린뉴딜·디지털뉴딜을 담당하는 미래전략국 등 관련 부서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제주코로나19 방역대응추진단에 보건·간호 인력을 확충했다.

앞서 도는 지난 4일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과 문경진 도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장기교육에서 돌아온 양기철 이사관(2급)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



양홍식 해양수산



현공언 인재개발원



안우진 상하수도본부



이상헌 부시장

터에 파견된다. 관심이 집중됐던 제주시 부시장에는 이상헌 도 공항공청 지원단장이 발탁됐고, 이 자리에는 교육에서 복귀한 강동원 부이사관(3급)이 자리한다.

이어 특별자치도추진단장에 고종석 부이사관, 교통항공국장에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이학승 돌문화공원관리소장이 각각 발령됐다. 아울러 오성울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만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현공언 인재개발원장, 김대근 세계유산본부장도 승진했다.

교육과 명예퇴직에 따른 국장급에서 직무대리도 다수 나왔다. 서기관(4급)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에 고춘화 서기관, 도시건설국장에 이창민 도시계획재생과장, 농축산식품국장에

홍충호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해양수산국장에 양홍식 수산정책과장,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에 허종민 지방농촌지도관, 상하수도본부장에 안우진 예산담당관이 각각 발령됐다.

서기관인 김인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이 예산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겨 눈길을 끈다. 예산 구조조정을 맡았던 과제부 예산총괄팀장이 돌문화공원관리소장으로 승진했다. 해양수산 연구원장에는 고희범 연구관이 직위 승진했고, 강봉숙 실무대여성문화센터소장은 직급 승진했다.

이밖에 서기관으로 승진한 변덕승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승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직무대리, 김애숙 도의회 총무담당관이 장기교육에 나선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시·서귀포시도 상반기 인사

제주시가 13일 예고한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자치행정국장에 박순태 환경관리과장이, 안전교통국장에는 홍성균 관공진흥과장이 각각 승진 임용됐다. 또 복지위생국장에는 윤인성 제주도 장애인정책팀장이 전보 발령됐다.

이번 인사 예고자는 모두 532명이다. 승진은 4급 3명, 5급 승진의결 13명, 6급 이하 63명 등 모두 79명이다. 또 인사교류 48명, 부서이동과 신규임용이 453명이다.

자치행정과장에 서연지 관공진흥

팀장을 승진 임용하고, 문화예술과장에 문명숙 마을활력과장을 배치하는 등 여성공직자를 주요 보직에 배치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대응 추진단을 재편해 32명을 배치하고, 애월읍에 건축민원TF팀을 설치했다.

서귀포시도 15일자로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예고했다. 인사규모는 총 366명으로 4급이하 승진 87명, 전보 229명, 도 인사교류 50명이다. 이번 인사는 '조직중심·사람중심·현장중심'의 인사'를 기조로 코로나

19 위기극복과 현안업무 추진·공직분위기 쇄신을 위해 2년 이상 근무자를 순환 전보하는 한편 코로나 19 등 감염병관리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보건소 조직을 코로나19 방역대응추진단으로 재편한 것이 특징이다. 서귀포보건소를 감염병관리 컨트롤 타워로 하여 동·서부보건소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서귀포시는 이날 인사를 통해 이상현 자치행정국장, 김희찬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창식 농수축산경제국장, 강미에 서귀포보건소장 직무대리를 각각 승진 발령했다.

현영중·문미숙기자

www.booyoungyouth.com

Jeju Booyoung Youth Center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 청소년들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곳 ”
아름다운 자연속에 추억이 머무는 곳

최고보다 최선을, 성공보다 행복을 꿈꾸는 청소년을 위한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의 청소년지도자들은 인성, 진로, 놀이, 봉사, 리더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련활동에 참여, 숙박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아름다운 환상의 섬 제주에서 청소년들이 미래 지향적 사고와 꿈을 키우고, 몸과 마음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수련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전과 용기 그리고 희망을 키우는 터전!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상로17번길 52-17(중문동)
T. 064-760-5700 F. 064-760-5757